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고찰

- 20세기 전기 -

김 주 애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Change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 in the First Half of the 20C -

Ju-A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first half of the 20C and analyze functions and features of men's underclothes. This study was to utilize many literatures in the analysis of historical change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1900's, the attached collar was giving place to the detachable, and the coloured shirt for day wear was becoming accepted. The correct wear for various occasions was given. Double collar was the favourite for day wear. The dress-shirt protector worn over the dress-shirt front. Men preferred to vest and pants in one as a combined garment.

In the 1910's, underclothes were permitting freer movement, but what was still more significant was the growing inclination to reduce the layers which covered the body. The new conception of decency which was beginning to appear continued to characterize underclothing the symbols of social rank, expect for formal occasion, were declining. For day the white shirt was being displaced by the soft-fronted shirt.

In the 1920-1930's, Underclothes were reduced in number, extent and thickness. Underclothing had lost two of its original function: it no longer preserved the warmth of the body, nor did it disguise its essential shape. Both sexes discarded the use of white underwear. In the 1930's, men saw an increasing preference for the coloured shirt. Combinations became increasingly popular and the singlet were displacing the under-vest in the 1930's. All undergarments were very commonly in natural colours.

In the 1940's, for evening dress, shirt was plain linen front and square cuffs. Short trunks reached to mid-thigh, had a front waist yoke with three button fastening. Underclothes were pursued ease and activity.

Key Words : 서양, 남성속옷, 20세기 전기, 색깔 있는 셔츠, 유연한 셔츠 앞부분

Western, Men's Underclothes, the first half of the 20C, the coloured shirt, the soft-fronted shirt

I. 서론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의생활 가운데 여성복 못지 않게 남성복도 색상, 기능 등 모든 면에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에 관한 고찰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에 실크 소재에 특수염료를 이용한 프린트 기술로서 체온에 의하여 무늬가 나타나는 쇼츠와 형상 기억가공 소재를 이용한 셔츠 및 키토산을 넣은 레이온계 섬유를 개발하는 등 피부에 적합한 속옷을 활발히 개발하여 디자인 외에 소재 면에서도 가능성을 증시하고 있다.

1980년대는 부와 지위를 추구한 브랜드 지향의 드레스업의 시대였지만 90년대에 들어와 모드의 흐름은 쾌적함을 추구하는 캐주얼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넉넉한 파자마 팬츠와 몸에 꼭맞는 스트레치 팬츠도 쾌적함 때문에 정착되었고 이것은 매끈한 실크 셔츠와 함께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편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서 애호되었다. 또한 여가 생활을 소중히 여겨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션이 창출됨으로써¹⁾ 속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쇼를 통해 뮤지엄 상품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었고, 다시 불고 있는 패션계의 복고풍으로 젊은이에게 구식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복고풍을 고려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속옷에 대한 관심과 복고풍에 대한 유행현상을 감안할 때 속옷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속옷에 관해서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왔으므로, 본 연구자는 남성 속옷에 관하여 고대에서 근대까지 고찰²⁾한 바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속옷의 종류가 많아지고, 전기와 후기에 따라 속옷의 변화가 뚜렷이 구분되므로 20세기 전·후기로 남성 속옷을 분류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20

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 환경이 남성 속옷에 영향을 미친 점 및 겉옷과 속옷과의 관련 여부를 고찰하며 나아가서는 19세기 남성 속옷과의 차이점을 밝혀서 20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이 갖는 의미와 기능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과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조형적 변화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기능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II. 20세기 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20세기 전기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생활양식, 예술양식,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있어서 아프리카와 중국대륙에 대한 식민지 활동과 일본과의 교역으로 인해 동양적인 색채와 무늬, 실루엣이 서양복식에 나타났다. 새로운 섬유가 개발되었고 직물가공법과 염색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의복소재가 생산되었으므로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은 특수한 용도나 필요에 맞는 직물들을 이용하였다³⁾.

1890년경부터 유행된 아워글래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에 이어 1900년경부터 1910년경까지 S커브 실루엣(S-curve silhouette)이 나타나 아르누보의 상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였다. 1900년대에 ILGWF⁴⁾가 창설되었고, 자동차의 대량생산이나 대서양 횡단 비행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20세기 초기에 제기된 복장개혁은 아르누보의 영감에 의해 단순화된 디자인, 생동감 있는 색채, 새로운 장식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1910년대에 영화산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영화를 통해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관념이 일반화되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속옷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면 화약의 제조로 인해 일반 면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부족하였으므로 견이 많이 이용되었다. 또 분홍색과 연어 살색 등의 색상이 속옷에 적용됨으로써 황변되기 쉬운 흰 견의 특성을

개선시켰다⁵⁾.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광범위하고 심각한 혼란이 전세계에 미쳤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한편, 이탈리아나 독일은 독특한 독재국가가 되어 전체주의가 의회제도를 대신하였다. 전쟁 이후 참전국의 여성은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었고 점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여성해방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아르데코 예술사조와 기능주의 추구는 더욱 성숙해졌다. 그 후 증권가의 파탄과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의복산업에 영향을 미쳤으나 패션의 흐름은 부단한 변화를 겪었다.

1930년대에 의복은 타운웨어, 운동복, 이브닝드레스 등 기능이 세분화되었다. 또 라텍스 직물과 지퍼가 이용됨으로써 체형에 맞는 속옷 착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남성복으로는 고급스러운 모직물이 이용되고 스포티한 정장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패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전후 물자 규제령에 의해 소비가 규제되었다. 1940년대에는 캐주얼웨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실용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전쟁 중 확대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의상에 있어서 계층간의 구별이 사라졌다.

III. 남성 속옷의 개요

1900년대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남성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먼저 크리켓, 축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복에서 계층구별 없이 같은 종류의 의복을 착용하게 되어 획일성이 적용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의상이 선호되었으며, 탑 햇(top hat)과 프록 코트가 특정한 전문 유니폼으로 착용되었다. 따라서 신사는 그들의 의복에 신분을 나타내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성이 적용되었다. 1910년대에는 사회적 지위보다는 부에 중요성을 두었다. 속옷은 움직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형태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 활동적인 생활에 많은 수의 속옷이 불필요하였으므로 신체를 덮는 층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정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 속옷에서 신분 표시가 감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신사의 셔츠와 칼라가 구별되지 않았다. 남성 속옷은 매우

간편하게 되었으며 부드러운 셔츠가 일반화되었다. 특히 젊은 남성은 상부에 고무로 구성된 짧은 팬츠와 민소매 언더베스트를 착용하였다.

1920, 1930년대에 겉옷이 기능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속옷도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여성의 속옷뿐만 아니라 남성 속옷도 수량, 크기, 두께 면에서 감소되었다. 팬츠가 짧아졌고 남성 속옷에 언더베스트를 대신한 싱글렛(singlet)⁶⁾이 도입되었고, 분리된 베스트와 드로워즈를 대신하여 하나로 결합된 컴비네이션이 이용되었다. 또한 인조견과 같은 얇은 재료가 선호되었다. 신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은 밀착되는 드레스와 브리취즈를 착용하였다. 1920, 1930년대에 남성 속옷에 있어서 색깔 있는 의복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성장되었다. 이전에 여성용 색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연어살색, 하늘색, 밝은 담황색, 복숭아색이 남성의 언더베스트, 드로워즈, 컴비네이션에도 이용되었다.

속옷은 더 이상 신체의 보온과 의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착용되지 않았으므로 속옷의 기본적인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흰 것은 순수함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흰 속옷의 사용을 꺼리며 선정적인 색상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었다. 전후에 속옷은 베스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둥근 목선, 민소매 형태로 되었으며 그물 스트링과 브리프스가 언더팬츠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직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욱 가는 실루엣이 생겨났다. 1940년대에 전쟁기간 동안 미국이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전후에 파리가 패션 리더의 위치를 되찾았다. 셔츠의 소재로 나일론이 도입되었고 팬츠는 요크 없이 앞 단추가림으로만 구성되었다.

IV.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

1. 1900년대

(1) 셔츠(Shirt)

주간용으로 이용된 흰 셔츠는 몸판의 소재로 롱클로스(longcloth)⁷⁾를 이용하였으나 앞과 커프스는 린넨을 이용하였다. 1900년경에 분리될 수 있는 칼

라가 이용되었고 주간용으로 색깔 있는 셔츠가 받아들여졌다. 종래는 흰 셔츠가 신분의 확실한 표현이었으나 이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복식사에서 이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의복을 입은 적은 없었다. 칼라는 이중칼라(double collar, polo collar)가 애용되었고, 칼라높이는 19세기 말에 비해 인치로 낮아졌으나 기념식에는 높은 칼라를 고수하였다. 작은 넥타이가 선호되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세탁이 가능한 타이와 칼라가 이용되었다.

셔츠는 착용 용도에 따라 착용법을 달리하였다. 예복이나 사무용은 색깔 있는 셔츠에 흰 칼라와 조화되는 커프스가 이용되었다. 결혼용의 흰 셔츠는 흰색의 높은 칼라에 검은색 새틴(satin)이나 밝은 색의 타이와 스카프를 이용하였고, 예배나 주일용의 흰 셔츠는 흰색 칼라와 커프스에 에스코트 타이(Ascort tie)⁸⁾나 스카프를 이용하였다.

이브닝용의 흰 셔츠는 높은 칼라, 넓은 끝으로 된 흰 타이, 장식용 자개단추(mother-of-pearl)와 링크스(links: 커프스 버튼)로 이루어졌다.

스포츠용은 리가타(regatta)⁹⁾나 줄무늬 옥스퍼드(oxford)셔츠였으며 이외에 플로칼라나 스탠드업 칼라로 구성된 화려한 플란넬 셔츠도 이용되었다(그림 1).



<그림 1> Shirt, attached collar and cuffs, 1900
(The History of Underclothes^{★13)}, p.130)

사업가는 앞부분이 부드럽고 턱(tuck)으로 구성된 흰 셔츠를 착용하였고, 작업시 커프스를 짧게 할 수 있게 손목밴드에 이중 단추가 부착되거나, 커프스를 분리시킬 수 있어 편리하였다. 1900년대 중반에 사업가

는 옥스퍼드나 제퍼(zephyr)¹⁰⁾를 소재로 한 부드러운 앞으로 구성된 흰 셔츠를 착용하였다. 흰 린넨 칼라와 커프스가 계속 이용되었으나 필수적이지 않았다. 부드럽게 가공된 셔츠와 더불어 플란넬 칼라가 유행되었다. 1900년대 말에 새로운 플란넬 소재로서 수축되지 않는 비엘라(Viyella)¹¹⁾ 셔츠가 이용되었다. 검소한 사업가는 디키(dickey)를 계속 이용하였고 이 외에 셀루로이드나 종이로 만든 칼라 및 셀루로이드 커프스가 이용되었다(그림 2). 전부터 이용된 줄무늬나 색깔 있는 피케 칼라 외에 모(毛)칼라가 이용되었다.



<그림 2> Dicky with 'Shakespeare' collar, 190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31)

드레스 셔츠는 앞부분이 적게 노출되었고 이 시기 말에 주름잡힌 앞부분에 한 두개의 단추가 유행될 때까지 한 개의 장식단추 외에 두 세 개의 장식단추도 계속 유지되었다. 드레스 칼라는 이 시기 말엽에 masher¹²⁾나 스탠드업 형태로 되었다. 주간용 커프스는 둥근 형태였으나 드레스 커프스는 각이 졌다.

실외에서 오버코트나 이브닝 크락이 착용될 때, 겹옷을 보호하기 위해 드레스 셔츠 위에 드레스 셔츠 프로텍터(dress-shirt protector)가 착용됨으로서 20세기 전기의 실용성을 추구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 특이한 고안물은 흰 새틴 패드에 켈트로 이루어졌다.

(2) 언더베스트(Under-vest)

언더베스트는 둥근 목선으로 이루어진 앞트임에 단추가 부착되었고 짧거나 긴소매로 구성되었다(그림 3).紳사들이 대부분 여름에 언더베스트 없이 지냄으로서 20세기 전기의 속옷 수량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소재는 보통 자연스러운 색상의 모나모와 견 혼방이었으나 여름에는 스판 실크나 셀룰러(cellular) 면이 이용되었다.

(3) 드로워즈와 팬츠(Drawers and Pants)

팬츠는 발목이나 종아리 중간 길이였고 드로워즈는 무릎 아래나 무릎 위 길이였다(그림 3, 4). 보통 속바지들은 허리 요크와 앞단추로 구성되었으며 언더베스트와 유사한 소재였다. 긴 드로워즈는 long johns라는 명칭으로도 이용되었다¹⁴⁾.



<그림 3> Drawers, striped silk, 190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 p.131)

(4) 콤비네이션(Combinations)

남성은 베스트와 팬츠가 한 벌로 구성된 콤비네이션을 선호하였다. 이 모드는 유행에 뒤지지 않는 않았지만 19세기 말기와 같은 형태로서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그림 4).



<그림 4> Combinations, 1908
(Men's Fashion, p.119)

(5) 코르셋(Corset)

19세기에 이어서 코르셋이 여전히 착용되었다. 이것은 힙길이었고 앞에서 조여지며 상부 가장자리에 무(gusset)가 삽입됨으로서 착용감이 훨씬 편하게 되었다. 코르셋은 플란넬과 샤무아(chamois)를 소재로 한 가슴과 등 보호대로 만들었으며 보디 벨트(body belt)와 바인더즈(binders)로도 불리었다.

2. 1910년대

(1) 셔츠

앞이 길게 재단된 흰 셔츠나 프린트 셔츠는 유행에 뒤졌다. 사무용 셔츠는 뾰뾰한 앞과 분리 될 수 있는 커프스로 구성되었으나, 흰 데이셔츠는 부드러운 앞으로 되었고 겨울에는 플란넬, 여름에는 네글리제(negligee)나 캄브릭(cambric)으로 만들었다. 셔츠의 앞부분은 좁은 턱부터 일 인치 넓이까지 다양한 주름으로 되었고 색상은 녹색이나 진한 보라색이 이용되었으며 흰 이중 칼라가 이용되었다. 특히 이브닝용으로 워킹칼라가 인기가 있었다. 데이셔츠는 부드러운 이중 칼라와 커프스를 가진 부드러운 crepe de Chine(주름진 두꺼운 비단의 일종)으로 된 사치스러운 형태였다. 부드러운 칼라와 앞으로 된 튜닉 셔츠는 전쟁 이전의 특징이었다. 여름 정장용은 짧은 앞과 이중칼라나 워킹칼라로 구성되었다. 남성은 숙녀에게 앞부분 외에는 속옷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1910년 이후에 셔츠는 보통 주름이 잡힌 앞과 워킹칼라¹⁵⁾로 되었고 1915년 이후에 검은 타이가 이용되었다¹⁶⁾.

주간용 타이는 좁은 타이 노트로 된 스카프가 일반적이었으나 포 인 핸드나 보우 노트가 인기가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모든 계층에서 뾰뾰한 칼라 대신 부드러운 칼라가 이용되었다. 드레스 셔츠 앞은 각 측면에 4-8개의 주름으로 다시 재현되었다.

(2) 언더베스트

언더베스트는 여전히 짧거나 긴소매로 구성되며(그림 5), 여름 소재로는 미가공면, 흰 거즈나 그물 소재가 이용되었고 겨울용으로는 메리노, 견과 모

혼방, 라마(llama)¹⁷⁾ 및 플란넬이 이용되었으며, 참호용으로 샤무아가죽도 이용되었다.

(3) 드로워즈와 팬츠(그림 5)

드로워즈는 언더베스트와 유사한 소재가 이용되었다. 미가공면, 켈리코, 고즈, 모, 견, 견과 모 혼방, 매리노, 라마와 플란넬 외에 참호용으로 샤무아가죽도 이용되었다. 군대에서도 발목길이 팬츠와 무릎길이인 드로워즈가 착용되었다.



<그림 5> Undervest and drawers, 1915
(Men's Fashion, p.119)

(4) 컴비네이션, 코트셋

많은 남성들은 19세기부터 착용되어온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구성된 컴비네이션을 여전히 착용하였다(그림 6). 코트셋은 서포트 벨트(support belts)로도 알려져서 이용되었다(그림 7).



<그림 6> White wool combination, 1910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p.424)



<그림 7> Male corset, 1910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p.211)

3. 1920-1930년대

(1)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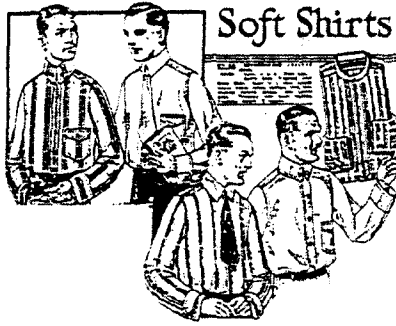
셔츠는 일상용과 정장용, 스포츠용으로 구분되어 착용되었다. 1920년대를 통해 주간의 정장용 흰 셔츠는 풀이 먹여진 앞과 커프스로 유지되었지만, 흰 왕칼라를 가진 줄무늬 셔츠는 모닝코트와 함께 착용되었고 이중 칼라로 된 색깔 있는 셔츠는 라운지(lounge) 슈트와 함께 착용되었다. 밝은 색의 타프타나 옥스퍼드 소재의 셔츠에 흰 칼라가 애호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 정장용과 이브닝용을 제외하고는 흰 셔츠는 실질적으로 사라졌고 색상이 다양해졌다. 회거나 색깔 있는 칼라는 특징적인 타이와 함께 신분을 나타내었다.

정장용으로 흰이나 이중 칼라로 된 줄무늬 셔츠가 정확한 착용법이었고 니트 타이가 인기가 있었다. 결혼용으로 흰 무지 셔츠와 칼라가 이용되었고 장례식용으로는 검은 줄무늬로 된 흰 셔츠 등이 1920년대 중반까지 이용되었다.

1930년대에는 색깔 있는 셔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으며, 코트형의 데이셔츠가 일반화되었다(그림 8). 드레스 셔츠용은 두 개의 앞 장식단추로서 보편화되었다. 무지의 약간 뻣뻣한 이중 커프스로 구성된 마셀라나 피케 셔츠나 주름잡힌 앞으로 된 셔츠가 인기 있었다.

골프용으로는 부드러운 칼라와 핀으로 된 색깔 있는 플란넬 셔츠를 착용하였다. 1920년대 후기에

면과 울 타프타를 소재로 한 새로운 콤비네이션 셔츠는 무릎길이의 트렁크 속으로 길게 연장되었다. 또한 1930년대의 탱크 탑 수영복으로부터 유래된 니트 면으로 된 밀착되면서 단순한 형태의 예술릭 셔츠도 이용되었다¹⁸⁾. 스포츠용으로 개발된 이러한 속옷들을 통해서, 20세기 전기의 스포츠에 대한 증가된 사회 분위기가 속옷에 적용되는 현상은 사회환경과 속옷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8> Soft shirts of coat style, 1920
(Everyday Fashion of the Twenties, p.26)

(2) 콤비네이션

베스트와 팬츠를 대신해서 원피스 슈트의 콤비네이션이 전후에 특히 인기가 있었다. 이것은 처음에 여름용으로 흰 거즈(gauze), 메리노, Aertex cellular (셀룰러)나 자연 모를 소재로 이용하였으나 이내 겨울용의 두꺼운 모직물도 이용되었다. 형태는 반소매와 다양한 다리길이로 구성되었다. 콤비네이션은 겨울용이라도 점차 민소매, V목선 및 짧은 트렁크로 되어지는 경향이였다(그림 9). 즉 20세기 전기의 간소화 추세의 사회 분위기가 속옷에도 적용되어 속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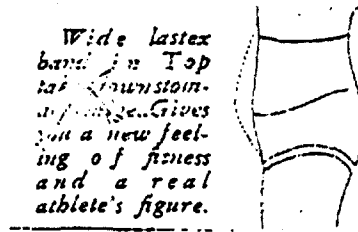
<그림 9> White cotton combination, 192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p.424)

형태면에서 점차 축소되어짐을 알 수 있다.

1920년 이후에 속옷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움직임이 매우 자유로웠다. 트여진 그물 스트링 재료와 브리프가 언더팬츠를 대신하게 되었다. 여러 색상의 인조섬유가 이용되었다¹⁹⁾.

(3) 쇼츠와 트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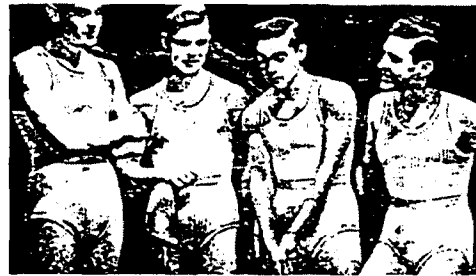
속바지의 허리밴드는 라텍스(Lastex)²⁰⁾로 만들어져 더욱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그림 10). 1930년대에 권투선수의 쇼츠에서 유래된 박스 쇼츠가 도입되었다. 최초의 니트 브리프 디자인은 조키 쇼츠였으며²¹⁾ 1930년대 말에 조키 쇼츠(jockey shorts)와 포플린 쇼츠도 나타났다.



<그림 10> Shorts in wide lastex band, 1938
(Everyday Fashion of the Thirties, p.111)

(4) 싱글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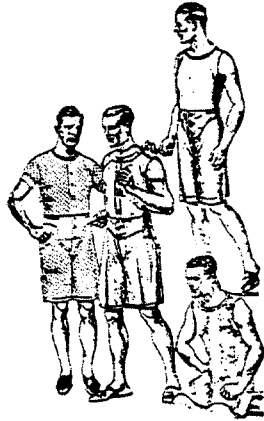
1930년대에 언더베스트 대신 싱글릿이 이용되었다. 싱글릿은 목부분을 저지(jersey)로 만들었으므로 착용에 편리하였다. 의복 형태는 깊은 목선 및 짧은 반소매로 구성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소매가 이용되었다(그림 11).



<그림 11> Shorts, 1938
(Everyday Fashion of the Thirties, p.111)

(5) 언더베스트, 드로워즈

이것은 유행에 뒤졌지만 계속 이용되었다(그림 12). 이 시기의 남성 속옷에 있어서 색상에 대한 애호가 급격히 성장하여 이전에 여성 속옷에만 적용되었던 연어살색, 하늘색, 밝은 담황색, 복숭아색 등이 남성의 언더베스트, 드로워즈, 컴비네이션에도 이용되었다. 남성의 선정적인 색상의 이용은 양성화 현상의 일면을 나타낸다.



<그림 12> Cool athletic underwear, 1920
(Everyday Fashion of the Twenties, p.64)

(6) 코르셋

Pan잡지를 통해 코르셋의 종류와 형태가 광고되었으며 1937년경에는 고무를 이용한 거들(girdle)이 착용되었다(그림 13). 1930년대에 드로워즈와 콜셋에 고무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활동적이고 편안함이 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Rubber male girdle, 1937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p.211)

4. 1940년대

(1) 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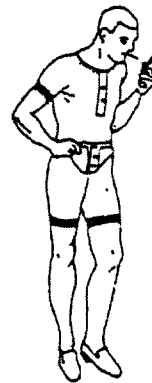
주간용의 흰 셔츠는 셀룰러 클로스를 이용하였고 싱글 커프스(single cuffs)²²⁾로 되었으나 가공된 면 포플린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중 커프스로 되었다. 색깔 있는 포플린은 폴로 칼라와 이중 커프스로 구성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긴축정책 시기 동안 셔츠의 작아진 테일(tail)과 이중 커프스 사용의 금지 등은 속옷이 사회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이브닝용은 한 두개의 장식용 단추를 가진 편평한 린넨 앞과 각진 커프스로 되었다. 부드럽거나 뻣뻣한 앞으로 구성된 마셀라(Marcella)²³⁾ 셔츠는 코트형태였으며 마셀라 커프스와 부드러운 폴로 칼라로 구성되었다.

미국 스타일의 해변 셔츠는 흰 칼라와 무지색상의 스판사로 되었고 이외에 광택소재도 이용되었다.

(2) 언더 베스트

남성은 셔츠 속에 반소매로 구성된 언더베스트를 착용하였다. 이것은 견과 메리노로 만들며 트렁크 드로워즈와 조화되기도 하였다. 겨울용은 긴소매로 되며 팬츠, 드로워즈와 함께 착용되었다. 보통 언더베스트는 앞 중심에서 단추로 여몄으나(그림 14), 단추 없이 머리 위로 덮여져서 착용되는 pullovervest 형은 Smedleys²⁴⁾로써 광고되었고, 이것은 V형의



<그림 14> Undervest, pants wool, 1939-4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63)

목선이 특징적이었다. 1940년대 말에 언더베스트와 싱글릿은 깊고 둥근 목선으로 되었다(그림 15). 1940년대부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단정하게 맞는 민소매나 짧은 소매의 언더베스트를 착용하였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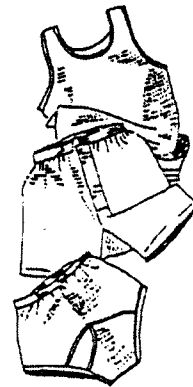
<그림 15> Undervest, drawers, 1946
(Men's Fashion, p.145)

2차 세계대전동안 남성은 군인 티셔츠라 불리는 짧은 소매의 니트 언더셔츠를 착용하였다. 전후에 시민들이 계속해서 착용함으로써 이 언더셔츠는 스포츠복으로 계속 이용되었다²⁶⁾. 코트형 셔츠는 유럽보다 미국에서 일찍 받아들여져 1940년대 중반에 일반화되었다.

(3) 트렁크, 드로워즈, 팬츠

속바지는 짧거나 긴 형태로 유지되었고, 순모나 혼방(모·견) 소재들이 이용되었다. 허벅지 중간길이인 짧은 트렁크는 앞 허리 요크에서 세 개의 단추로 조였다. 1940년대 말에 성글게 짜거나 양면짜기로 된 언더 팬츠는 앞 요크 없이 앞쪽에 직선의 트임 덧단(fly front)²⁷⁾으로 구성되었다(그림 16). 또한 새로운 다리 형태를 가지는 거대한 트렁크와 셀룰러로 된 자키 트렁크는 살 위의 오른쪽에 트임이 있는 단순한 형태였다. 쇼츠는 처음에 앞트임이 없었으나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기에는 Y형의 앞트임이 이용되었다²⁸⁾. 1940년대부터 앞부분이 Y형태로 이루어진 쇼츠와 박스 스타일이 함께 경쟁적으로 이용되는 실제 변화가 나타남으로써²⁹⁾ 20세

기 전기에서 1940년대가 속바지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Net underwear, athletic vest, elastic waisted, jockey trunks, 195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 p.163)

(4)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은 천연 모, 중간정도의 중량, 반소매, 짧은 무릎길이로 이루어졌으며 겨울용은 긴 다리형태였다. 소재는 앙고라-인디언 거즈(Anglo-Indian gauze), 흰 실크 메리노 등이 이용되었다. 운동선수용은 민소매에 이량이 있는 허리로 구성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의 종류와 특징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20세기 전기에 이르러서는 셔츠가 용도에 따라 착용법을 달리함을 알 수 있고 신분표시 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색상을 이용한 선정적인 면과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19세기 후기 부터 도입되어 착용된 콤비네이션은 20세기에도 계속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1920년대에는 새로운 품목으로 싱글릿이 도입되었고 남성 속옷에 민소매 구성과 라텍스 사용으로 더욱 활동적인 의복형을 추구하였다. 또한 소재면에서 19세기에 속옷의 소재로 도입된 모의 사용이 20세기 와서 보편화됨을 알 수 있다. 1940년대에 드로워즈의 트임 덧단이 이용됨으로써 착용이 더욱 편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세기 전기에 따른 속옷의 종류 및 특징

시기 종류	1900년대	1910년대	1920-1930년대	1940년대
셔츠	· 용도별 착용 · 색깔 있는 셔츠 · 이중칼라, 분리될 수 있는 칼라 · 롱클로스, 비엘라 · 드레스 셔츠 프로텍터	· 흰데이셔츠 앞: 부드러운 칼라, 주름 · 플란넬(冬), 캠브릭(夏) · 드레스셔츠: 측면주름, 윙칼라	· 일상용, 정장용, 스포츠용 구분 · 1920년대 색상 다양 · 정장용: 줄무늬 이중, 윙칼라 · 스포츠용: 턴다운 칼라 · 1930년대: 에슬릭셔츠	· 주간용: 흰 셔츠, 셀룰러 클로스 · 이브닝용: 장식용 단추 편평한 린넨 앞 각진 커프스 · 마셀라셔츠: 코트형
드로워즈	· 팬츠, 드로워즈 · 앞 단추, 허리 요크 · 언더베스트와 유사한 재료	· 미가공면, 켈리코 고즈, 메리노, 라마, 플란넬	· 허리밴드: 라텍스	· 트렁크: 앞요크, 단추 팬츠, 쇼츠 · 앞트임, fly front · 모, 모와 견 혼방
언더베스트	· 자연스러운 색 · 길거나 짧은 소매 · 모, 모와 견 혼방, 스판실크, 셀룰러면	· 소매: 長·短 · 미가공면, 흰거즈(夏), 메리노, 라마, 플란넬(冬)	· 자연스러운 색 · 선정적인 색: 연어살색, 하늘색, 복숭아색	· 반소매, 긴소매(冬) · 앞중심: 단추 깊고 둥근 목선 · 견, 메리노
컴비네이션	· 언더베스트, 드로워즈 대응: 한 벌 · 19세기 말과 동일한 형태	· 짧거나 긴 소매 유지	· 1930년대 말: 일반화 · 반소매, V목선, 짧은 트렁크, 민소매 · 흰 거즈, 메리노, 셀룰러면	· 반소매 짧은 무릎길이 · 운동선수: 민소매 · 앙고라, 인디언거즈 견 메리노, 천연모
코르셋	· 팔아래에서 힙길이 · 상부 가장자리: 무 · 보디벨트, 바인드즈	· 스포트 벨트	· 고무 거들	—
싱글릿	—	—	· 언더베스트 대응 · 목: 저지, 깊은 목선 · 짧은 반소매, 민소매	· 깊고 둥근 목선 · Smedleys: V목선
기능	· 신분표시	· 신분표시 감소: · 경제적 지위 중요	· 선정적 기능, · 실용성 추구, 중량 감소	· 실용성 추구

V. 요약 및 결론

20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대에 셔츠는 용도에 따라 착용법을 달리하였으며, 주간용 흰 셔츠는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이용되었고, 색깔 있는 셔츠가 받아들여졌다. 주간용 커프스는 둥근 반면에 드레스 커프스는 각이 진 형태였다. 1900년대 중반에 셔츠 높이가 19세기 말에 비해 낮아졌으나 기념식에서는 하이칼라가 이용되었다. 드로워즈는 언더베스트와 유사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드레스 셔츠 프로텍터가 착용되었다.

1910년대에는 속옷에 여유분이 있어 활동이 자유로웠으며 신체를 덮는 층이 감소되었다. 사무용 셔츠는 뻣뻣한 반면에 주간용 흰 셔츠는 앞부분이 부드러운 소재로 되었다. 셔츠 앞은 주름이 잡히고 이중이나 윙 칼라가 일반화되었다.

1920년 이후에 속옷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태였으며 수량, 크기, 두께 면에서 감소되었다. 1920년대 후기에는 턴 다운 칼라로 구성된 스포츠 셔츠가 착용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정장용과 이브닝용을 제외하고 흰 셔츠는 사라졌으며 색깔 있는 셔

츠를 선호하였다. 또한 코트형의 셔츠와 짧은 쇼츠가 인기가 있었다. 새로운 속옷 품목으로 싱글릿이 도입되어 언더 베스트를 대신하였으며 이것은 단추 없이 편리하게 착용됨으로써 실용적인 면이 고려되었다.

속옷의 기본적인 기능인 신체의 보온과 형태유지의 목적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색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남성 속옷에서 자연스러운 색상 외에 선정적인 색상도 사용되었다.

1940년대에 트렁크는 허리 요크에 앞단추로 구성되었으나 언더팬츠는 앞 요크 없이 앞쪽에 트임 덧단으로 이루어졌다. 콤비네이션은 반소매와 짧은 무릎길기로 구성된 것 외에도 계절에 따라 긴 다리 형태도 이용되었으며, 운동선수용은 민소매 형태였다. V형의 목선에 단추 없이 앞이 막힌 형태인 Smedleys가 이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전기의 남성 속옷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세기에 이르러 19세기까지 신분표시로서 중요시되었던 흰 칼라의 셔츠 대신 색상 있는 셔츠를 선호하여 신분표시가 사라졌고 남성 속옷에 선정적인 색상이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신분표시의 기능은 남성 속옷의 역사에서 속옷의 기능 중 가장 중시되고 오래 지속되어 왔으나 20세기에 이르러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20세기의 민주주의에 의한 평등 의식이 팽배했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현대의 다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활동에 편한 속옷을 선호하게 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속옷의 기능 중 의복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소멸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2. 20세기 전기에도 19세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영향이 속옷에 많이 적용되었다. 즉 양 세계대전의 영향이 속옷에 적용되어 모와 건의 이용이 증가되었고, 19세기까지 열등하게 인식되었던 플란넬 소재가 보편화되었다. 전후의 긴축 정책 시기에 이중 커프스의 금지나 셔츠의 테일을 짧게 하여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점은 역시 속옷과 사회 환경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20세기 전기의 겉옷의 기능화 추세가 속옷에도 적용되어, 칼라가 19세기 말에 비해 낮아져서 활동에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셔츠 앞부분을 부드러운 소재로 유연하게 구성하여 활동에 편하게 되었다. 셔츠 목의 저지 이용, 고무를 이용한 허리밴드, 드로워즈의 트임 덧단 활용 등은 기능성을 고려한 의복 설계로 보여진다. 또한 20세기의 기능성을 중시한 사회적 영향을 받은 겉옷의 변화에 따라 속옷도 편리하고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여, 19세기까지 있어왔던 셔츠의 장식적 요소들이 사라졌다. 19세기에 비해 속옷의 감소화 현상이 뚜렷해져 20세기 전기 속옷의 특징적인 요소로 부각되었다.

4. 중세 말기의 브리이프형이 20세기 전기에 짧은 쇼츠와 같은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겉옷과 마찬가지로 남성 속옷에서도 리바이벌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종래에 여성 속옷에만 이용되던 선정적인 색이 남성 속옷에도 애용됨으로써 양성화 측면도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속옷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속옷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불가분의 관계로 유지되며, 겉옷의 변화 또한 속옷에 그대로 적용되어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성 속옷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적 배경과 겉옷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속옷 디자인을 구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및 미주

- Benson, Elaine & Esten, John, Unmentionables, Simon & Schuster, 1996.
- Carter, Alison, Underwear, B. T. Batsford, 1992.
-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 _____,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 Davenport, Millia, The Book of Costume, Volume II, Crown Pub, 1948.
- Ingham, Rosemary & Covey, Liz, The Costumer's Handbook, Prentice Hall Press, 1980.
- Langner, Lawrence, The Importance of Wearing

- Clothes, Hastings House, 1959.
- Levitt, Sarah, Victorians Unbuttoned, Harper Collins, 1986.
 -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 Olian, Joanne, 1994, Wedding Fashions 1862-1912, Dover, 1994.
 - Peacock, John, Men's Fashion, Thames and Hudson, 1996.
 -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 Stella, Blum, Everyday Fashion of the Twenties, Dover, 1981.
 - Stella, Blum, Everyday Fashion of the Thirties, Dover, 1981.
 - Torrtora, Phyllis G. & Eubank, Keith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 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社團法人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5.
 - 신영일, 신사복 이야기, 모르고 입는 옷, Voslenza, 1993.
 - 신영일,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Voslenza, 1995.
 -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사전, 시사문화사, 1982.
 - wysiwyg://33/http://business.fortunecity.com/nicholas/550/adj.htm
- 1) wysiwyg://33/http://business.fortunecity.com/nicholas/550/adj.htm
 - 2) 金珠愛,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學會, 服飾, 40호, 1998, pp.171-180.
_____, 19세기 전기의 서양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7권 5호, 1999, pp.56-67.
 - 3)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5, p.314.
 - 4)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352.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
 - 5) 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社團法人日本ボティファツション協會, p.119.
 - 6) 소매 없는 운동용 메리야스 셔츠
 - 7)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사전, 시사문화사, 1982, p. 154.
얇고 가벼운 상질무명.
 - 8) 넓은 neck-scarf로써 보통 접혀지며 스카프핀(scarf-pin)으로 고정됨.
 - 9) 캔브릭의 소재에 줄무늬로 이루어짐.
 - 10) 매우 얇은 모직 옷감.
 - 11) 면과 모의 혼방, 능직 폴란넬, 그 명칭이 오래 유지되었으며 1890년대에 윌리엄 홀린스에 의해 처음에 나이트웨어에 도입되었다가 곧 모든 부분에 적용됨.
 - 12)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134.
매우 높으면서 둥근 스탠드 칼라로 masher(dandy)에 의해 착용됨.
 - 13) *는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 14) Elaine Benson and John Esten, 앞의 책, p.109.
 - 15) 야외복용으로 세운 것, 앞부분 끝이 접혀 있음.
 - 16)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368.
 - 17)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앞의 책, p.144.
낙타과에 속하고 라마족에서 얻는 털.
 - 18)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396.
 - 19) Doreen Yarwoo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p.424.
 - 20)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앞의 책, p.149.
고무심지로 질 좋은 고무사를 면, 인조섬유, 견, 양모와 기타 섬유사로 섞은 제품의 상표명.
 - 21)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396.
 - 22)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p.213.
껴어 접지 않은 커프스로 대개 단추로 여미며 배럴 커프스라고도 함.
 - 23) 능형처럼 무늬를 나타낸 엷은 천인 면의 아트 피케로서 조끼의 앞 몸판, 침구 등에 쓰임.
 - 24) C. 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앞의 책, 1981, p.163.
 - 25) Joan Nunn, 앞의 책, p.214.
 - 26)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 396.
 - 27)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656.
여밈이나 트임 부분을 이중으로 하는 덧단.
 - 28)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앞의 책, p.396.
 - 29) Joan Nunn, 앞의 책, p.214.